

일본 요코하마 선교소식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19

추석 한가위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사기 말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매일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캠퍼스 한 영혼의 이야기>

봄학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 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진 후 가을 학기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찾아서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사한 순간도 많았지만, 쉽게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희 정기 모임에 한 여학생(Harumi-게이오대학 2 학년)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소개로 온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모임을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SNS 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중,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코하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학생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은 처음이라 저희 모두가 놀랐고, 하나님께서 친히 한 영혼을 보내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단기선교팀의 열매로 연결된 시립대 학생 Ran 과 Mao 가 동경, 요코하마 여름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Mao 는 1 학년때부터 3 년 연속 단기팀의 코리안 파티에 왔던 친구인데, 올해는 대학 써클의 합숙대신 여름 캠프에 참석했고, 새롭게 연결된 4 학년 Ran 도 여름 캠프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국립대 Dunkun 이 초대한 Kristin 은 여름캠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석자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름 방학동안에도 스팀트잇 학생들과 좋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단순히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아가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CCC 공동체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스팀트들의 이야기- 이별, 만남>

만남은 참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만남이란 이 의미는 또 이별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스팀트들의 사역은 현지 선교사인 저희 부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년, 1년 6개월을 함께 사역했던 3명의 스팀트들을 한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이들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흘렸던 눈물과 기도, 뿌린 복음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별의 마음은 아프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크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떠난 세명의 뒤를 이어 김영훈 선교사가 9월 15일 일본으로 입국했습니다.

선한 눈매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이민서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 하우스에서 생활하는데, 1년간의 생활과 선교사역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CCC 여름수련회>

강원도 평창에 11,000여명이 참석한 대학생 여름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미션부스 운영과 선교특강, 상담을 통하여 일본 선교 동원을 하면서, 반가운 동역자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잘 돌아왔습니다.



<요코하마 여름 단기선교>

부산, 서울남, 진주 CCC 의 단기선교팀(52 명)이 와서 맡겨진 요코하마의 6 개 캠퍼스에서 헌신적으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해주었습니다. 초대한 많은 친구들에게 JaKo Night 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한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단기선교로 연결된 친구들을 잘 추적육성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동경 요코하마 여름 캠프>

군마현 아카기 바이블 캠프에서 진행된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가야 할 학생들이 모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Kristin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의 케이가 도쿄의 케이야와 함께 전체 리더를 잘 감당해주어 감사가 됩니다.

<타사카 케이 자매의 간증>

요코하마 CCC 소속, 4 학년 타사카 케이입니다.

올해 초, 대학에서의 마지막 해를 주님을 위해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학기 초,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단기선교팀과 스타트(STINT)를 통해 조금씩 귀한 동역자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여름 캠프를 준비할 때도 상황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코하마에서 5명 이상의 학생이 참가하게 해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도 데려오지 못해 결국 저 혼자 신청해야 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여름 한국 단기선교팀의 'JaKo Night'를 통해 연결된 넉크리스천 학생 2 명과, 예전에 CCC 에 왔던 학생이 데려온 친구까지 더해져 기적처럼 정확히 5 명의 학생이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의 작은 기도에 완벽히 응답하셨습니다.

더욱이 요코하마 참가자 중 3 명이 넉크리스천이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그중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까지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동역자를 주신 것을 넘어 한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 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 학기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기대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선교사 재파송식>

1 년, 1 년 6 개월을 함께 동역했던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 세명을 한국으로 재 파송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한국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신임 김영훈 선교사와 요코하마 선교사 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임 김영훈 선교사가 무사히 일본에 입국하여, 전입신고와 휴대폰 개설등을 마치고 첫 선교사 팀미팅에 참가하였습니다. 건강과 영성 안전을 지켜 주시고, 아름다운 팀웍으로 맡겨 주신 선교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주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선교동역자님의 복된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귀한 일터 가운데 넘쳐흐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삼겹줄 가운데 만나 뵈기를 소원합니다. Shalom!!!

2026 년 9 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노태철 이춘희 선교사 드림.



<중보기도 제목>

1. 10 월 1-3 일 전남주 순회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특강 합숙을 하는데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2. 새롭게 연결된 학생들(던컨, 제리, 아베, 하루미, 란, 마오, 임강, 하루나)이 순모임에 연결되게 하소서!
3. 요코하마에서 함께 사역했었던 김연준 목사님 (뉴저지 찬양교회) 이 혈액암 투병중입니다. 그리고 체장암으로 투병중인 전영선 장로님 두분에게 최선의 치료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소서!
4. 한국에서 군생활 중인 현규(게이오대학 2년)의 건강 영성 안전을 지켜주소서!
5. 요코하마에서 함께 동역하고 귀국후 부천지구 협동간사로 섬기는 지혜민, 언니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는 노하영, 학업에 복귀한 정경구, CCC 신입간사훈련원에 지원한 양원준 순장을 축복하소서!
6. 10 월 말에 있는 퍼스평강장로교회의 요코하마 비전트립을 축복하소서!
7. 11 월 9-13 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전체 간사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필요(항공료, 등록비)가 채워지게 하소서!
8. 저희 부부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 주시고, 은비 종성, 신영 예지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9. 10 월 4 일, 18 일 요코하마 하쿠산도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10. 요코하마 카나가와현 22 만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할 장기 선교사를 보내어 주소서!